

“덜 여문 나주배에 항산화 물질 다량 함유”

자궁경부암 세포 증식 억제·성인병 예방 탁월한 효과 배연구소 심포지엄... 나과 배 등 고부가가치 창출 기대

덜 여문(미성숙·未成熟) 나주배와 부산 물에 인체에 유용한 ‘항산화 화합물’이 다량 함유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나주배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지난 12일 농촌진흥청 산하 배연구소가 개최한 ‘배연구소 개소 48주년 학술 심포지엄’에서 발표됐다.

나주 배 고부가가치 창출 등 배 과수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날 심포지엄에는 배 과수분야 산·학·연·관 관계자, 원예학회 호남지부 회원, 배 과수 농가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농림수산식품기획평가원(IPE) 산하협력 공모사업을 추진 중인 ‘나주배 고부가가치화 연구사업단’은 ‘배 기능성 성분연구’를 통해 배 성분 중에 자궁경부암 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각종 성인병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알부틴, 클로로겐산, 말라시닉산 등 유용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는 것을 규명했다.

전남대학교가 주관하는 연구사업단에는 나주시와 지역산업체 2곳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배 유용성 연구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사업단 연구결과 유용성분은 나주배 미성숙과 외에도 배 부산물인 정전가지(가리지기한 나뭇가지)와 과즙을 추출한 후 남은 찌꺼기인 ‘착즙박’에도 항산화 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심포지엄에서 문재학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는 “기존에 활용성을 발굴하지 못해 대부분 폐기돼 왔던 배 미성숙과에 유용 항산화 화합물이 성숙과보다 다량 함유돼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상품성이 떨어져 그동안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아온 ‘나과 배’ 등이 농가 소득을 올려 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재평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주배 고부가가치화 연구사업단은 미성숙과에 함유된 알부틴, 클로로겐산 등 유용 화합물을 대량으로 고순도 정제하는 기술을 지역산업체에 이전해 현재 화장품 원료로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과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나주시도 연구사업단과 공동으로 미성숙과, 비상품과를 이용한 음료 개발, 동결 건조를 통한 가공식품 개발·유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나주 배 미성숙과와 전정가지, 착즙박의 유용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제시된 만큼 배 부산물을 실용화 해 농가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농촌진흥청 산하 배연구소가 개최한 배 고부가가치 창출 학술심포지엄이 배 과수분야 산·학·연·관 관계자, 원예학회 호남지부 회원, 농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는 올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혁신도시 호수공원과 배매산 일원 2만7000㎡ 부지에 ‘빛가람 유아 숲 체험원’을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나주시가 지난해 산림청 지역발전사업 유아 숲 체험원 조성 공모에 선정돼 추진된다.

전망대를 품은 배매산 자연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게 될 유아 숲 체험원 조성에는 총 3억원(국비 50%·시비 50%)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 시설은 체험·놀이·교육을 동시에 만족시킬 ‘자연 친화적 교실공간 제공’을 목표로 조성된다.

주요시설로는 징검다리, 나무 오르기, 사면 놀이대, 모래·흙·우드칩 놀이터, 인디언 집, 곤충의 집, 보물찾기 등이 가능한 ‘숲속 놀이터’를 비롯해, 숲속 교실, 유실수·초화원 길 등이 계획

돼 있다.

호연지기를 키워줄 거미줄 타기, 밧줄놀이 등이 가능한 ‘모험활동 놀이터’와 그물집대, 데크 평상을 갖춘 ‘숲속 쉼터’도 들어선다.

인공시설물은 최소화하고, 자연 친화적 공간을 지향하는 유아 숲 체험원은 혁신도시 중앙호수공원을 찾는 가족단위 방문객과 지역 어린이집, 유치원 원아들의 숲 체험을 통한 전인적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는 지난 11일 금성산 ‘국립나주 숲체험원’ 조성 사업 착공에 이어 유아 숲 체험원까지 착공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화된 산림복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조재운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유아 숲체험원은 아동들의 학습능력과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공격적 성향 감소, 면역력 증진 등에 큰 효과가 있는 최적의 자연 체험 교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빛가람 유아 숲 체험원’이 들어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호수공원과 배매산 일원. <나주시 제공>

혁신도시에 유아 전용 숲 체험원 만든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 도심 속 유아들의 전인 성장을 돕는 유아 전용 숲 체험원이 들어선다.

나주시는 올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혁신도시 호수공원과 배매산 일원 2만7000㎡ 부지에 ‘빛가람 유아 숲 체험원’을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나주시가 지난해 산림청 지역발전사업 유아 숲 체험원 조성 공모에 선정돼 추진된다.

전망대를 품은 배매산 자연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게 될 유아 숲 체험원 조성에는 총 3억원(국비 50%·시비 50%)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 시설은 체험·놀이·교육을 동시에 만족시킬 ‘자연 친화적 교실공간 제공’을 목표로 조성된다.

주요시설로는 징검다리, 나무 오르기, 사면 놀이대, 모래·흙·우드칩 놀이터, 인디언 집, 곤충의 집, 보물찾기 등이 가능한 ‘숲속 놀이터’를 비롯해, 숲속 교실, 유실수·초화원 길 등이 계획

돼 있다.

호연지기를 키워줄 거미줄 타기, 밧줄놀이 등이 가능한 ‘모험활동 놀이터’와 그물집대, 데크 평상을 갖춘 ‘숲속 쉼터’도 들어선다.

인공시설물은 최소화하고, 자연 친화적 공간을 지향하는 유아 숲 체험원은 혁신도시 중앙호수공원을 찾는 가족단위 방문객과 지역 어린이집, 유치원 원아들의 숲 체험을 통한 전인적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는 지난 11일 금성산 ‘국립나주 숲체험원’ 조성 사업 착공에 이어 유아 숲 체험원까지 착공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화된 산림복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조재운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유아 숲체험원은 아동들의 학습능력과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공격적 성향 감소, 면역력 증진 등에 큰 효과가 있는 최적의 자연 체험 교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나주역·문예회관 인근 도로

통로박스 2곳 환경정비 완료

나주시는 다중이용시설인 나주역 전과 문화예술회관 인근 도로 통로박스 2곳의 환경정비 사업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통로박스 2개소는 낮에도 햇빛이 들지 않는 칙칙한 장소인 탓에 고질적인 안전사고지대로 인식돼 왔다.

특히 KTX, SRT 등 하루 열차 이용객 3000여명에 육박하는 나주역전 통로박스는 유동인구가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곳이다.

시는 사업비 3600만원을 투입해 지난 3월부터 벽화, 도색, LED등기구 설치작업 등을 통해 어둡고 칙칙했던 통로박스를 아기가자하 그림이 그려진 밝고 신나는 통로로 새롭게 단장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소년 우범지역을 해소하고 이에 따른 범죄 예방, 보행자들에게 재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이같은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기자 kms@



풍년 기원 ‘배신제’ 봉행

나주 배의 전통과 역사를 계승하고 한 해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배신제’ 봉행 행사가 나주 배 원예농협 주관으로 지난 17일 나주 배 박물관 배신제단에서 거행됐다.

남평향교의 제식진행으로 제관천정 및 분청에 초헌관은 조재운 나주시장 권한대행이, 아현관과 종헌관은 김판교 시의회 의장과, 배민호 조합장이 각각 맡아 의식을 치렀다.

2017년 기준 나주지역 배농가는 2262농가이며 전체 재배면적이 2000ha에 이른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 의료서비스 강화 위해 보건소 증축

90억 투입 내년 1월 착공 목표

나주시가 맞춤형 보건으로 서비스 강화를 위해 보건소를 증축한다.

18일 나주시에 따르면 2019년 1월 착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90억원을 투입, 현 보건소 주차장 부지 1148㎡에 5층 규모의 통합형 보건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보건소 증축은 빛가람혁신도시 조성 이후 매년 늘고 있는 인구 유입에 따른 보건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의료 수요층에게 양질의 공공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결정됐다

증축 건물 내부에는 통합 건강체험관, 감염병 대응진료실, 휘트니스센터, 공연장, 커뮤니티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보건소 증축 첫 단계로 오는 8월까지 6억원을 들여, 보건소 증축으로 편입되는 기존 주차장 부지를 대체할 신규 주차장 부지부터 매입할 예정이다.

또 오는 4월까지 사업계획서를 확정짓고 상반기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소 증축에 필요한 ‘국비 확

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초시의원 2명,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주민 15명 등으로 구성된 보건소 증축 관련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이들은 시공 적정성, 공사 추진계획, 건물 내부 공간 운영 등 보건소 증축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 대해 심의·자문역할을 하게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인구 11만을 넘어선 나주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중보건의 핵심적 역할 수행을 위해 보건소 증축을 결정했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 시설 조성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기자 kms@kwangju.co.kr

로컬푸드지원센터-두레박협동조합 식재료 공급 협약

나주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센터장 홍형석)는 최근 지역 사회적기업인 두레박협동조합과 업무협약(사진)을 갖고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 2014년 설립된 두레박협동조합은 2016년부터 나주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을 위탁·운영 중이며, 노인 무료급식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협약을 통해 로컬푸드 직매장 빛가람점의 판매 잔량을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지역 취약계층 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출하농가의 잔량 수거 부담이 줄어들며, 한편 급식 수급자들의 먹거리의 질이 향상되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약은 먹거리에 대한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로컬푸드 지원센터와 두레박협동조합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시민과 함께 活民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활민)

정읍시의회 www.jcc.or.kr